



나이지리아

대외채무 지급 연체 당분간 계속될 듯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석유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1999년 이후에도 지급해야 할 외채원리금의 상당액을 연체중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간 15억 달러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외채를 상환하는 정책이 단시일 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영국 BBC 방송이 “나이지리아가 대외채무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라는 보도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이후에도 나이지리아는 외채원리금 상환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당시 BBC 방송은 조지프 사누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석유수출 감소 및 국영통신사를 포함한 민영화 계획의 차질을 이유로 33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어 대외채무 상환중단을 선언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거래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국가부도의 상황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선언으로, 환어음을 매입하는 국내 외국환은행 및 거래업체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가 이 선언의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해명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된 바 있다.

금년도 외채상환도 원활하지 못할 듯

나이지리아의 연간 도래하는 외채원리금 상환액은 약 50억 달러 수준이지만, 1994년 이후 동국 정부는 연간 외채원리금 상환한도를 15억 달러로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외채를 상환하고 있다.¹⁾ 외국 채권단은 석유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채상환액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외채상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도 2001년에는 상환한도를 20억 달러로 증액

1) 2000년의 DSR(debt service ratio)은 만기도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9%였으나, 실제상환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6.0%에 불과하여 기일도래 외채원리금의 상당 부분이 연체중임을 알 수 있음.

하였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의회는 늘어난 석유 수출 수입(收入)은 열악한 국내의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02년 외채상환 예산한도를 15억 달러로 환원시켰다. 따라서 금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원리금 50억 달러(그 중 이자는 24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적기 상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다 2001년 9월 OPEC의 감산조치로 생산 쿼터가 일일 200만 배럴에서 190만 배럴로 감소함에 따라 석유수출이 줄고, 계약금까지 납입되었던 국영통신사 Nitel의 매각계약이 금년 여름 취소됨으로써 기대수입 13억 달러가 줄어들어 따라 예산이 책정된 15억 달러의 상환계획마저도 수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파리클럽과 합의한 리스케줄링,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동국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절대적이어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석유수입이 외환수입의 95% 및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산 석유를 대표하는 보니라이트의 평균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안팎에 머물던 1998년에 나이지리아의 수출총액은 89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석유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에는 석유 수출물량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1990년대 후반 2%대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부터 3%대로 높아졌고, 2003년부터는 4%대로 상승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1990년

대 중반까지 1,200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1인당 GDP가 나이라貨의 평가절하로 인해 1999년 이후 300달러 선으로 줄어든 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1인당 GDP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에 불과하고, 330억 달러의 외채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고채무빈국(HIPC)에 적용되는 탕감기준에 따라 공적채무를 경감하여 줄 것을 주요 채권국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은 199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695달러 이하인 나라 중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여 1993년에 HIPC를 선정하였으므로, 나이라貨가 평가 절하되기 전의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이 695달러를 초과한 나이지리아는 HIPC에서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나이지리아 정부는 어려운 외채상환 여건을 내세우며 HIPC에 준하는 외채경감을 주요 채권국과 국제기구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단은 석유가격 상승으로 연간 수출액이 200억 달러에 이르러 나이지리아의 외채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미 2000년 12월 파리클럽의 리스케줄링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HIPC 방식에 의한 채무탕감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의 파리클럽 합의내용은 경제개혁 조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외채 234억 달러에 대해 2003년까지 상환을 동결한 후 18~20년에 걸쳐 나누어 상환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요금과 국내 연료가격에 대한 보조금 철폐, 각종 규

제조차 해제 등 IMF가 요구하는 경제개혁 조치의 이행 여부가 리스케줄링 실시의 기준이 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가 2002년 초 IMF의 정책자문을 거절함에 따라 촉발된 채권단과의 관계 악화로 리스케줄링이 언제 실행될지는 불확실하다.

2003년 4월 선거에서 오바산조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높아

인구가 1억 2,000만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는 군인 대 민간인, 회교 대 기독교, 남부 대 북부 종족 등 복잡한 사회적 갈등이 내재된 상태에서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북부 출신의 회교 군부 세력이 정치무대를 주도해 왔으나, 1999년 5월 남부 요루바족 출신의 기독교도인 올레세군 오바산조가 자유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와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 사례가 카두나주에서 발생한 회교도와 기독교도간 갈등이다. 회교도의 비중이 높은 북부 12개 주(州)에서는 주정부 자체의 결정으로 회교 율법인 '샤리아'가 시행되고 있으나, 회교도와 기독교도의 비율이 비슷한 북부의 카두나주에서 2001년 샤리아의 도입을 둘러싸고 양 세력이 충돌하여 3,0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9.11 사태 후에도 충돌이 재발하여 10,000명의 사상자 발생하였다.

이외에 빈부격차 심화, 재정지출 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도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석유 주산지인 니제리 강 델타 지역에서의 석유 근로

자 납치 등 다양한 형태의 소요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 재설정 논의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석유 생산지 주정부의 요구를 북부의 주정부들이 반대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연방헌법 개정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산적한 종교, 지역, 빈부격차 등 수많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집권 3년 동안 300일 이상을 외국방문에 사용한 오바산조 대통령에 대해 스스로 사임할 것을 권고하는 양원 합동결의안이 2002년 8월 통과되었다. 그러나 오바산조 대통령은 의회의 사임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의원들의 비리혐의 조사를 강화하며 2003년 봄으로 다가온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를 준비중이다.

주지사 및 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유력한 후보가 없어, 현직의 이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오바산조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모든 행정력은 선거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인 경제개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파리클럽이 리스케줄링 협정 이행의 전제로 내세운 조건들을 완화하지 않는 한 리스케줄링은 2003년 중반 이후에나 재론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까지 외채원리금의 상당 부분이 연체되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韓明煥】